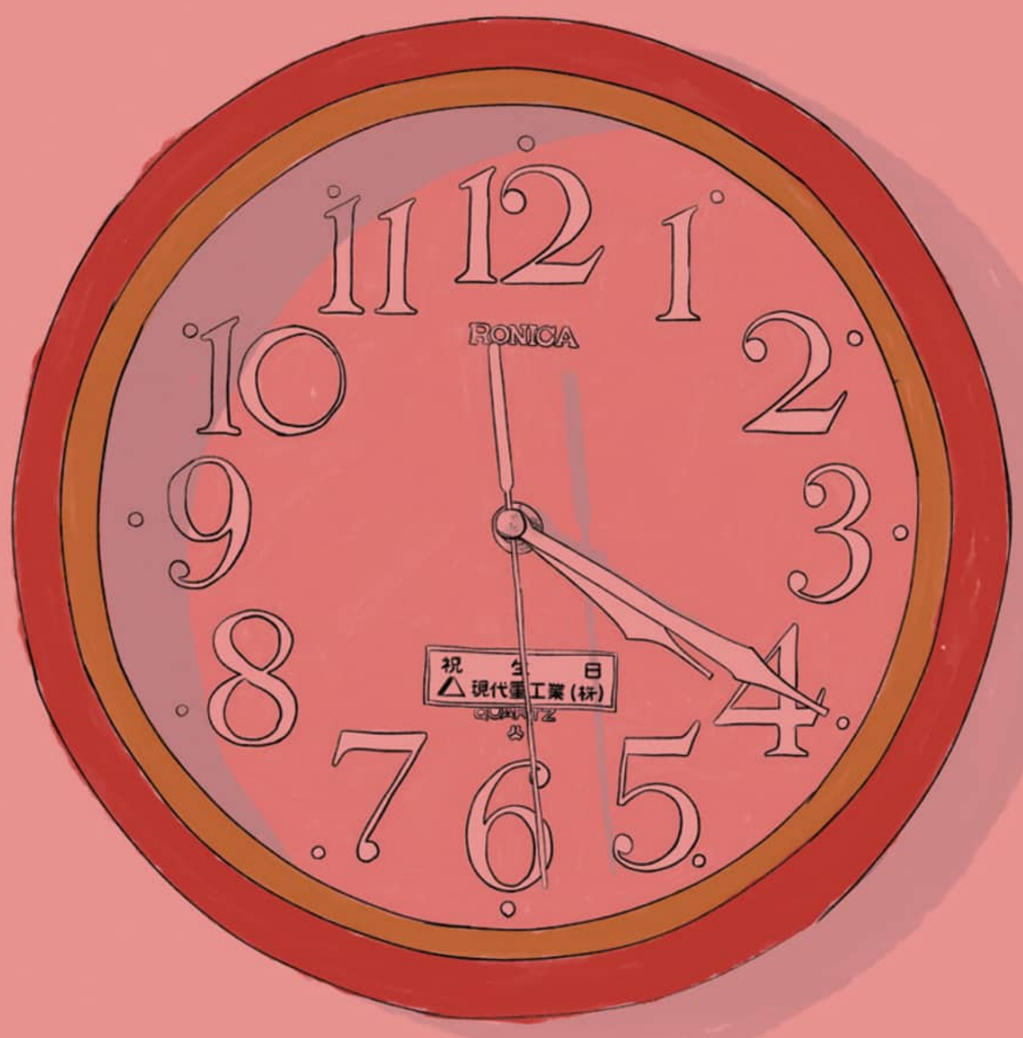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황보영국 열사 벽시계

Wall Clock Belonging to Hwangbo Yeong-guk

황보영국 열사 부산☆병원 평생등록증

Hwangbo Yeong-guk's Registration Card to Busan ☆ Hospital

황보영국 열사 자동차운전 면허증

Hwangbo Yeong-guk's driver's license

황보영국 열사 사진

Photograph of Hwangbo Yeong-guk

ISSN 2765-298X

2025. 겨울호

179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민주공원

2025년 겨울호 통권 179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5년 12월 9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중,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이보람 편집위원 김보영 배가영 배정애 유한별 이지희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펴내면서

12 · 3 불법계엄 저지 1년.

총과 칼을 든 위헌적인 권력 탈취 시도를 막아냈지만, 그 이후의 혼란과 깊게 분열된 사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4 · 19혁명, 부마민주항쟁, 5 · 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남긴 정신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오늘의 과제를 풀어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겨울호 소식지는 '12 · 3 불법계엄 저지 1년, 되짚는 혼란의 시간과 남은 과제들'을 주제로 「마루누리」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며, 더 나은 민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민주공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나은」 코너에서는 민주열사 진성일, 부산민가협 어머니들, 민중가요 등 그때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기념해,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부마의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기고자 한 회원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지난겨울, 이 말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고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대하며 서로의 온기로 더 따뜻해질 2026년을 기다려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표지 : 그림_이성열** : 민주주의기록관 사료전시실에는 황보영국 열사의 유품인 시계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시계는 열사가 고등학생 시절 현대중공업 실습 중 회사로부터 생일선물로 받은 것으로, 유족은 2023년 5월 16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기증했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36년 동안 가족 곁을 지켜준 시계"라며, 기증 전날 열사의 어머니께서는 시계를 품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황보영국 열사의 시계는 가족의 곁에서 36년 동안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그 시계는 민주주의기록관에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흐를 것입니다.

목 차

04 **마루누리** 빛의 항쟁, 미래를 밝히는 과거_김기영

08 **민주공원** 부마의 함성 지금 여기!_이보람

기록의 집을 짓다_이봉미

기록으로 만나는 민주주의 <터널북 만들기>_김민화

민주화운동의 계보 : 부마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_김호민

18 **더: 나은** 진성일, 꺼지지 않은 한점의 불꽃_조원호

아! 어머니!_허운영

민중가요 저장소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_이보람

30 **회원과 함께** 시월, 민주주의를 만나다_유한별

36 **민주사랑방**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온 편지
'부마민주항쟁, 헌법에 새겨야 할 이름'_김종기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41 **민주알림방**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당신입니다

12.3 불법계엄 저지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빛의 항쟁, 미래를 밝히는 과거

김기영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행동 상황실장

<<내란 · 계엄(또는 친위쿠데타)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국회 해산을 위해 투입된 계엄군을 막아낸다. 그 시각 국회는 만장일치로 계엄을 해제함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내란의 주범인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킨다.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이 행정부 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기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주도 하에 내란 세력 청산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역사적 죗값을 씻는 심정으로 '내란죄'의 엄중함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곧 내란 행위자가 밝혀지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분리가 즉각 시작된다. 끝까지 체포에 저항하는 내란 세력들을 통쾌하게 제압하는 공권력을 보며, 정의롭게 쓰이는 공권력에 감탄하며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진다.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만큼, 재판부는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내란에 관련된 이들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모든 것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며 광장으로 쏟아진 국민들의 압도적 엄호 속에 진행되었고, 거칠 것이 없었던 과정이 된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국민 주권, 진짜 '민주주의'가 내란·친위 쿠데타를 단기간에 완벽히 제압하는 모습은 세계사적 모범으로 남는다.>>

광장에 모인 우리가 상상했던 내란 청산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윤석열의 체포 거부', '직무대행 한덕수 ·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지귀연과 검찰의 석방 공조', '극우 내란 세력의 조직적 반동'이 잇따랐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질문하고 사유할 여유조차 없이, 숨 가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대선 득표율 8.27% 차이가 보여주듯, 내란의 토대는 여전히 두텁고 뿌리 깊었다. 오늘, 우리는 '빛의 항쟁'이라 불린 그 투쟁 속에서 스쳤던 질문과 본질을 다시 마주해보고자 한다.

내란과 계엄의 역사적 뿌리

>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
> *– 1974년 국군의 날 박정희 연설 –*

>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 *–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담화 –*

이번 내란을 단지 한 개인의 권력욕으로만 해석한다면, 역사의 연속성을 놓치게 된다. 윤석열은 '친일 – 독재 – 보수'로 이어지는 권력의 흐름 속에서 역할을 맡은 계보의 후예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 세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권력구조에 뿌리내렸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복귀했다.

군사 권력이 약화되자, 그 연속선은 검찰 권력으로 옮겨갔다. 당의 명패는 바뀌었지만, '반북 · 반공'의 기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포장으로 유지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자유'를 수없이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맥락 위에 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며 내뱉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말은, 1974년 박정희가 유신 연설에서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를 일시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두 발언은 시대만 다를 뿐, 권력의 논리는 같았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80년 묵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라는 구호는 바로 그 역사에 대한 응답이었다.

전쟁 유도와 미국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

내란 세력은 계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려 했다. 북한과의 교전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전시체제'를 구체화하려 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평양 무인기 침투'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드론사령부의 작전 계획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한미연합사령부에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란을 위한 군사작전이 이미 미군을 통해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내란에 협조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이 발언을 통해 광장에 공유되었을 때, 다른 의미의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이 가졌던 믿음,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했던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라는 지지 선언은 불신에 쐐기를 박았고, 더 이상 광장에서 미국은 세계 정의를 지키는 우방이 되지 못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돌격대를 자임했던 윤석열 정권. 그 3년 동안 치솟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평화를 안착시키는 체제를 상상해야 하며, 내몰리는 전쟁에는 당당히 "NO"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적 주권 국가〉로의 전진은 '빛의 항쟁'이 남긴 우리의 과제이다.

극우에 노출된 '희망을 잃은 사람들'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극우의 발호였다. 코너에 몰린 극우세력은 더 이상 '사대 매국'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든 그들은 '내란 청산'과 '윤석열 파면'을 찬반의 논쟁거리로 만들며 여론을 왜곡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화여대 난입 사건'을 보며 많은 이들이 서북청년단을 떠올렸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망언을 내뱉던 그들의 잔재가 다시금 사

회의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등장한 한국 극우세력이 서북청년단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극우 종교 – 극우 정치 – 극우 재벌'로 이어지는 극우연대를 완강한 처벌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광풍이 다시 불어올 게 뻔하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절망의 틈을 극우가 파고들고 있다. 더 굶주리는 사람들, 더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극우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사회가 각자도생의 약육강식 사회와 절연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극우의 발호는 더 커질 것이고 잠재우기 힘들 것이다.

'빛의 항쟁'은 다시 얻기 어려운 변화의 동력을 남겼다. 가장 개인주의적이라 평가받던 10 · 20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함께'를 외쳤고, 오랜 세월 운동을 이끌어온 선배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빛나는 광장을 부탁한다"라고 응답했다. 희망을 누군가에게 기대던 국민이 이제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넘어야 할 과제도, 싸워야 할 전선도 분명해졌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12 · 3 불법계엄 저지, 빛의 광장 또한 과거가 되었다. 빛의 항쟁이라는 과거가 다가올 미래를 비출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걸음을 단단히 지탱한다.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사진=필자 제공)

부마민주항쟁 46주년 기념 제34회 민주시민상

부마의 함성 지금 여기!

— 개인 부문 손이헌 대연 · 우암씨알협동조합 수석이사, 단체 부문 부산대학생행동 수상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 · 기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이사장 이행봉)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 · 계승하고자 1992년 민주시민상을 제정해, 민주 · 인권 · 평화 · 통일 · 생태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민주시민의 표상으로 삼아왔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민주시민상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후보 추천 공모를 진행했고, 민주시민상운영위원회(위원장 강재규)의 심사를 거쳐 개인 부문에는 손이헌 대연 · 우암씨알협동조합 수석이사, 단체 부문에는 부산대학생행동이 수상자로 선정했다.

제34회 민주시민상 후보로 추천된 개인과 단체 모두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삶을 살아왔기에 어느 후보가 선정되더라도 손색이 없었다. 강재규 민주시민상운영위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의 숭고한 삶의 궤적을 두고 수

상자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후보자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부정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도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막의 오아시스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10월 16일(목) 오후 7시, 민주공원 큰방(중극장)에서 열렸다.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된 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모신 것이 오늘의 영광"

— 개인 부문 수상자 손이헌 대연 · 우암씨알협동조합 수석이사

손이헌 수석이사는 15세 소년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불의에 분노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1991년 철탑마을(현재 대연우암공동체)로 이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강제철거에 함께 분노했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주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손 수석이사를 주민운동과 주거권 쟁취 투쟁으로 이끌었다. 그는 도시빈민들의 생존권인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대연우암공동체 주민들을 조직하고,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 연대를 통해 주거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2000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주민지도자로 성장했고, 체계적인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 강화와 민주시민 의식화에 앞장섰다. 2012년에는 '부산주민운동교육원'을 설립하고 초대 대표로 활동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손 수석이사는 대연우암공동체 활동을 넘어, '주거복지부산연대' 공동대표로서 부산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재개발 반대 투쟁, 전국 도시빈민을 향한 무자비한 재개발 철거지역 지원, 및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대응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현안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오늘의 대연 · 우암공동체는 여전히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청소하고, 밥을 나누며 상부상조의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전 세계와 UN주거특별보고관까지 견학할 만큼 모범적인 주민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이헌 수석이사가 있었다.

34년간 한결같이 주거권과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손이헌 수석이사의 삶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연대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상 소식을 알리자 손 수석이사는 "돌이켜보면 별로 한 것도 없이 그저 내 자리에서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했을 뿐인데, 대단한 상을 받아 미안함이 앞선다. 35년 전 시작한 주민운동이 때로는 피 터지는 괴로움과 후회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된 힘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모신 것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다. 늘 함께하는 동료들과 주민들,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학내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 단체 부문 수상자 부산대학생행동

부산대학생행동(대표 이승민)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동맹 강화의 뜻에 부응해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졸속적 · 굴욕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역사 정의와 자주평화를 실현하고자 결성됐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은 정부의 굴욕적 정책에 맞서 학내에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 · 지역적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결성 초기부터 부산대학생행동은 부산지역 10여 개 대학 학생들에게 제3자 변제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학내 캠페인을 벌이고, 초량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서 '제3자 변제안' 반대 청년 · 학생대회를 개최하며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모란장 훈장이 취소되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일본의 진정한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지역 12개 대학 캠퍼스에서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알리고, 대학생들에게 피해자들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알리며 〈양금덕 할머니께 드리는 대학생 응원 엽서〉 받기 활동을 진행, 500여 명의 학생 목소리를 모았다. 양금덕 할머니께 부산시민 명예훈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3년 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선언하자 부산대학생행동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학내 캠퍼스를 누비며 핵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양투기반대 서명을 받는 등 부산 지역에서만 5,000여 명의 대학생 서명을 확보했다. 이어 서울, 부산, 대전, 경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1만여 명의 서명을 모았다.

부산대학생행동은 대학생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초 · 중 · 고 청소년 멘토로서 역사 정의와 자주평화 실현 활동을 전개했다. 매년 '12.28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기억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배상과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반일대회를 개최하며, 올바른 역사 위에 미래를 써 내려갈 것을 다짐하고 실천적 활동을 이어왔다.

윤석열 정권에서 역사기관의 장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가 임명되고,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테러리스트 김구' 도서 출간 등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이 훼손되자, 부산대학생행동은 815명의 대학생 서명을 받아 초량동 항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9.28 부산시민대회의 사전행사에서도 시민들에게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2024년 하반기, 전국 대학에서 교수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이 시작되고, 정권 지지율이 20% 내외로 낮아지는 시점에 부산대학생행동은 민생파탄, 역사부정, 이태원 참사, 채해병 수사 의혹 등 정부가 미래세대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10월부터 부산지역 대학생 1만인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학칙으로 대학생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던 국립부경대에 맞서 항의한 대학생들이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자, 부산대학생행동은 학칙개정 서명운동을 벌여 총장의 사과와 학칙개정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부산대학생행동은 '부산대학교 1,050인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신라대, 부산보건대, 경성대, 부경대, 동서대 등 각 대학별 시국선언을 이끌며 지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정국에서 부산대학생행동은 지역 젊은이들의 여론을 모아내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생행동은 빛의 광장의 모든 순간을 국민들과 함께하며,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축산물 시장개방 요구 등 관세 약탈정책에 맞서 국가 주권을 지키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강재규 민주시민상운영위원장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배금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부산대학생행동 소속 대학생들의 용기 있는 활동을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방패이자 보루"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신을 헌신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학생운동이 매우 힘든 이 시대에, 이를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내란청산 투쟁에 헌신한 부산대학생행동의 기개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별화되어가는 대학사회에서 함께 모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부산대학생행동은 "민주시민상을 수상한 것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앞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라는 당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부산대학생행동은 학내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부마의 함성 지금 여기!

민주시민상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상으로, 올해까지 총 29명의 개인과 30개의 단체가 수상했다. 부마의 함성은 과거의 외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민들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회 곳곳에서, 서로 연대하며 불의에 맞서고 인권과 평화,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손이헌 수석이사와 부산대학생행동의 헌신과 용기는 그 증거이자, 더 나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 전시

기록의 집을 짓다

이봉미 |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전시 · 문화예술교육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잊힌 기억을 복원하고, 말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회의 증거를 되살리는 일이다.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은 바로 그 '기록의 힘'을 되새기며 탄생한 공간이다. 항일 독립운동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축적됐다. 이 흐름을 잇는 기록관의 개관은 민주공원이 오랫동안 품어온 염원의 결실이자, 민주주의의 가치가 현재로 이어지는 곳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부산 최초 민주주의 아카이브 기관으로, 54,000여 점의 사료와 700여 점의 구술, 1,000여 점의 미술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방대한 기록은 한 도시의 기억이자, 시민들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발자취다. 이번 개관 기념전 《기록의 집을 짓다》는 이러한 자료들을 선별해 전시를 구성하고 민주공원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전시의 첫 번째 흐름 '기록의 집을 짓다'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이 어떤 여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부문에서는 민주공원의 설립 취지와 연혁, 민주주의기록관이 거쳐온 과정을 공유한다.

두 번째 흐름인 '기억과 기록'은 부마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7, 8, 9월 노동자대투쟁, 故 김형률 등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증언하는 사료와 민중미술 작품을 통해 시대가 남긴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는 그날의 생생한 사진과, 현장의 기록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기록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임을 알려준다. 함께 전시된 민중미술은 민주화운동의 시대정신을 담아낸 시각적 기록으로 억압 속에서 드러낸 목소리와 삶과 투쟁을 증언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민주주의기록관은 문서와 구술, 사진뿐 아니라 예술 작품을 함께 수집·보존·전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다층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적 아카이브로서 예술 역시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기록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세 번째 흐름 '예술과 기록의 대화'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이 공간은, 과거의 기록을 오늘의 예술로 이어 붙이는 장이 된다. 참여자들은 일상 속 기억을 기록하며 과거의 기록이 현재형의 역사로 확장함을 경험한다.

이번 전시는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자료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출판물이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기록의 힘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연구와 아

카이브, 교육, 예술을 매개로 계속 진행됐으며 이는 현재에서 민주주의 기억을 공공의 기억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기록관의 개관을 앞두고 기념하는 전시이자 민주화운동이 남긴 사료와 연구, 예술을 한곳에 모아 기록이 민주주의 토대를 이루는 구체적인 근거임을 제시한다. 앞으로 개관할 민주주의기록관은 단순히 보존의 장소를 넘어 살아있는 기록의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지역의 기억을 보존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 중심 공간으로 자리할 것이다.

<편집자주> 민주주의기록관은 2026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입니다.

위. 첫 번째 흐름 '기록의 집을 짓다'
아래. 두 번째 흐름 '기억과 기록'

기록으로 만나는 민주주의 〈터널북 만들기〉

김민화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학술기획

민주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딱딱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부산 지역 6월민주항쟁의 기록을 담아낸 터널북 만들기 「기록으로 만나는 민주주의」 체험을 기획해 현재 시연 중이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새로운 기록'

기록이란 기록관에 보존된 기록물뿐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흔적과 기억 모두를 포함한다. '터널북 만들기'는 참가자 개개인이 사료전시실 해설을 듣고, 6월민주항쟁의 자료, 사진, 민중미술 등 핵심

사료를 스스로 선별하고 재구성하여 만들게 된다. 이는 단순히 만드는 행위를 넘어 역사 기록을 현재의 시각과 감동으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기억으로 남기는 주체적인 기록 행위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 고리

기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억과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부산의 민주항쟁 기록을 보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 내는 동력을 얻기 위함이다. 터널북의 여러 프레임을 사용한 깊이감 있는 구조는 민주주의가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역사를 상징한다. 참가자들이 만든 터널북은 민주화의 역사를 개인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며,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료가 된다.

'보통 사람의 힘'을 되새기는 교육

민주주의 기록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낸 역사이다. 터널북 체험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힘을 되새기게 된다. 특히 어린이 참가자들은 직접 자료를 오리고 붙이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계보 : 부마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

김호민 | 민주공원 학술사료팀 사료연구

'기억에서 기록으로'에서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장한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 사료를 소개합니다. 소개된 사료는 민주공원 디지털아카이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월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독재체제를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보안기관과 경찰력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의 물리적 힘은 여전히 강력했으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 외부 세력들도 기존 체제의 전면 붕괴를 원치 않았다. 6월민주항쟁에 기여한 통일민주당은 항쟁이 끝난 이후 분열되었고, 중요한 과제인 민주개헌은 독재정권의 비협조 속에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항쟁의 열기가 식어가던 1987년 10월 17일, 6월민주항쟁 당시 맹활약한 부산여자대학 총학생회는 부산 시민들에게 성명서 하나를 보냈다.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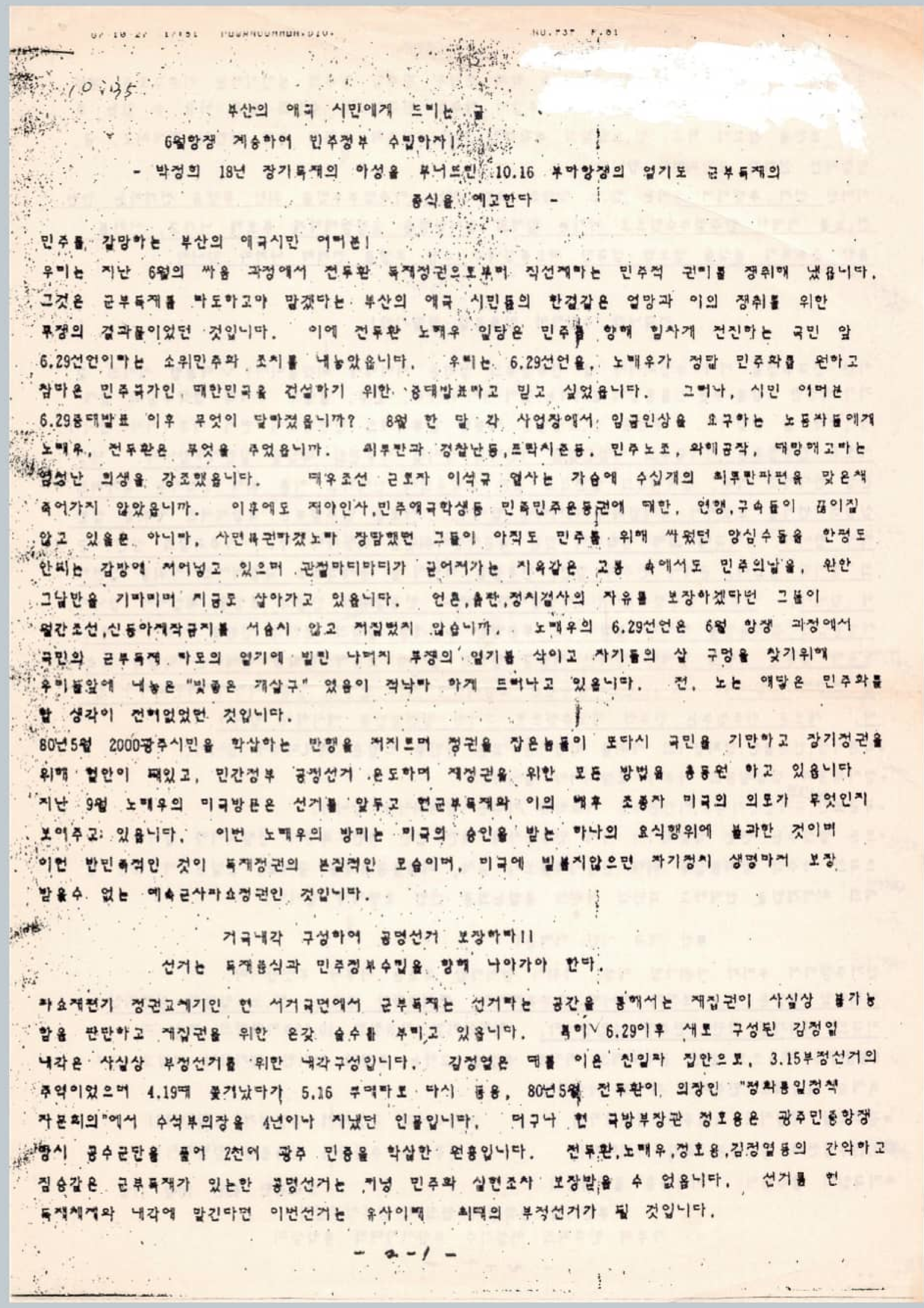
선거 투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싸워서 얻어야 할 목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각 후보자가 아니라 군부 독재이며, 쟁취해야 할 목표는, 전 · 노 일망의 완전 퇴진, 미국의 외세 개입 차단, 민주정부 수립입니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10.16 부마항쟁의 계승과 6월항쟁의 계승으로 27년 군부 독재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투쟁에 전 시민 궐기하여 기필코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의 거리로 나섭시다.

- ◆ 광주 학살 책임지고 노태우는 사퇴하라!!
- ◆ 거국 내각 구성하여 공정 선거 보장받자!!
- ◆ 3.15 부정선거 김정열은 즉각 사퇴하라!!
- ◆ 민주정부 수립하여 민족 통일 앞당기자!!
- ◆ 미국 없이 살 수 있다. 미국놈을 몰아내자!!

조국분단 43년 10월 17일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남부지구산하 자주화 민주화의 여성기수 부산여자대학 총학생회


부산의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

6월항쟁 계승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 박정희 18년 장기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린 10.16 부마항쟁의 열기로 군부독재의 종식을 예고한다 -

민주를 갈망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의 싸움 과정에서 전두환 독재정권으로부터 직선제라는 민주적 권리를 쟁취해 냈읍니다. 그것은 군부독재를 타도하고야 말겠다는 부산의 애국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과 이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민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국민 앞 6.29선언이라는 소위민주화 조치를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6.29선언을, 노태우가 정말 민주화를 원하고 참다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대발표라고 믿고 싶었읍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6.29중대발표 이후 무엇이 달라졌읍니까? 8월 한 달 각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노태우, 전두환은 무엇을 주었읍니까. 최루탄과 경찰난동, 트럭시온등, 민주노조, 와해공작, 대량해고라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읍니다. 대우조선 근로자 이석규 열사는 가슴에 수십개의 최루탄파편을 맞은채 죽어가지 않았읍니까. 이후에도 재야인사, 민주애국학생등 민족민주운동권에 대한, 연행, 구속들이 끊이질 않고 있을뿐 아니라, 사면복권하겠노라 장담했던 그들이 아직도 민주를 위해 싸웠던 양심수들을 한평도 안되는 감방에 처어넣고 있으며 관절마디마디가 굳어져가는 지옥같은 고통 속에서도 민주의날을, 완안 그날만을 기다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읍니다. 언론, 출판,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그들이 월간조선, 신동아제작금지를 서슴치 않고 저질렀지 않습니까. 노태우의 6.29선언은 6월 항쟁 과정에서 국민의 군부독재 타도의 열기에 밀린 나머지 투쟁의 열기를 식히고 자기들의 살 구멍을 찾기위해 우리들앞에 내놓은 "빛좋은 개살구" 였음이 적나라 하게 드러나고 있읍니다. 전, 노는 애당초 민주화를 할 생각이 전혀없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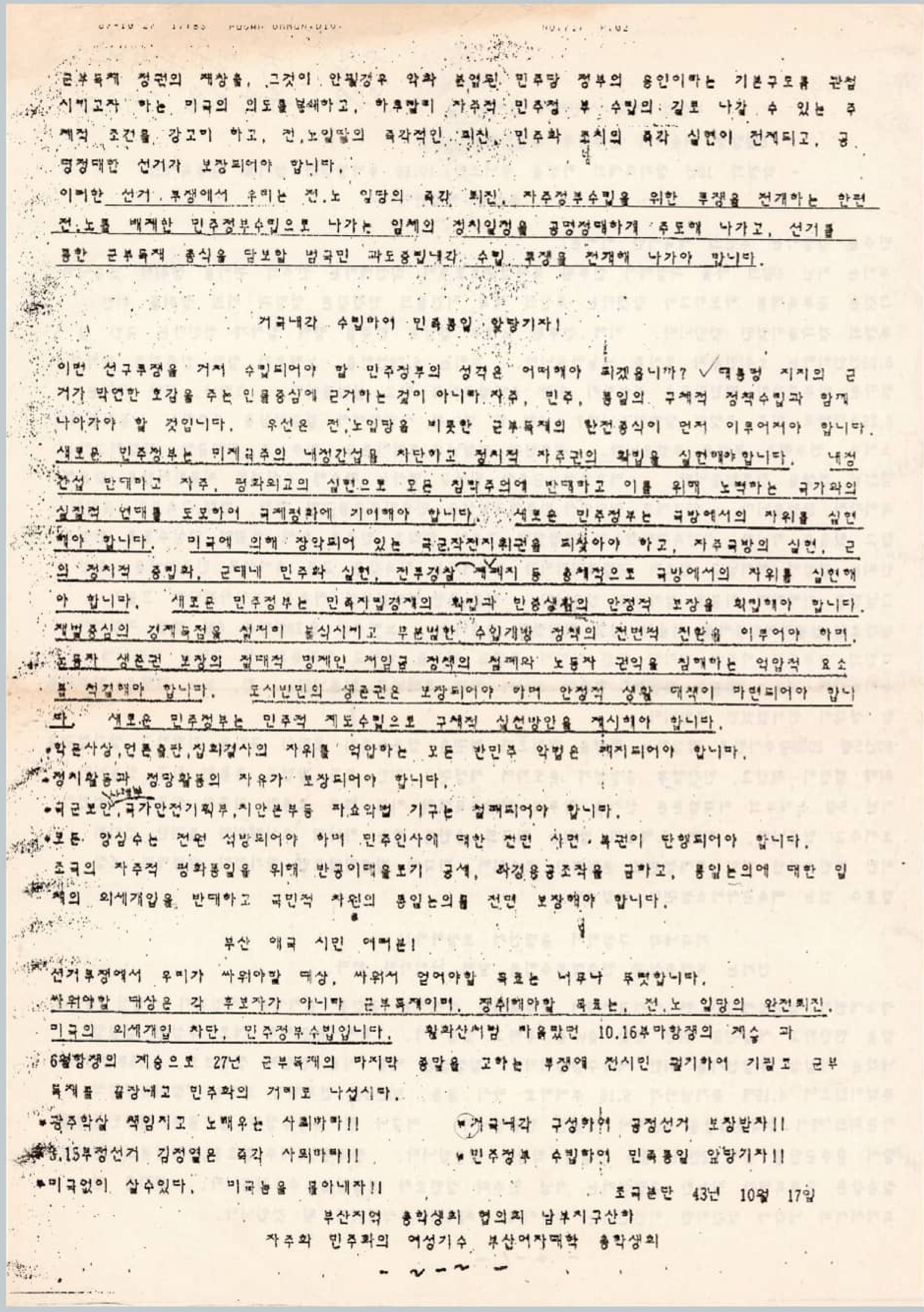
80년5월 2000광주시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정권을 잡은놈들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혈안이 돼있고, 민간정부 공정선거 운도하며 재집권을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하고 있읍니다 지난 9월 노태우의 미국방문은 선거를 앞두고 현군부독재와 이의 배후 조종자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읍니다. 이번 노태우의 방미는 미국의 승인을 받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런 반민족적인 것이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모습이며, 미국에 빌붙지않으면 자기정치 생명마저 보장 받을수 없는 예속군사파쇼정권인 것입니다.

거국내각 구성하여 공명선거 보장하라!!

선거는 독재종식과 민주정부수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파쇼체전기 정권교체기인 현 시기국면에서 군부독재는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는 재집권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재집권을 위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읍니다. 특히 6.29이후 새로 구성된 김정열 내각은 사실상 부정선거를 위한 내각구성입니다. 김정열은 대를 이은 친일파 집안으로, 3.15부정선거의 주역이었으며 4.19때 쫓겨났다가 5.16 쿠데타로 다시 등용, 80년5월 전두환이 의장인 "정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수석부의장을 4년이나 지냈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현 국방부장관 정호용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공수군단을 풀어 2천여 광주 민중을 학살한 원흉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정열등의 간악하고 짐승같은 군부독재가 있는한 공명선거는 커녕 민주화 실현조차 보장받을 수 없읍니다. 선거를 현 독재체제와 내각에 맡긴다면 이번선거는 유사이래 최대의 부정선거가 될 것입니다.

- 2-1 -


군부독재 정권의 재창출, 그것이 안될경우 악화 분열된 민주당 정부의 용인이라는 기본구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를 봉쇄하고, 하루빨리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강고히 하고, 전,노일당의 즉각적인 퇴진, 민주화 조치의 즉각 실현이 전제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 투쟁에서 우리는 전.노 일당의 즉각 퇴진, 자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노를 배제한 민주정부수립으로 나가는 일체의 정치일정을 공명정대하게 주도해 나가고, 선거를 통한 군부독재 종식을 담보할 범국민 과도중립내각 수립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거국내각 수립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이번 선구투쟁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민주정부의 성격은 어떠해야 되겠읍니까? 대통령 지지의 근거가 막연한 호감을 주는 인물중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의 구체적 정책수립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전,노일당을 비롯한 군부독재의 완전종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미제국주의 내정간섭을 차단하고 정치적 자주권의 확립을 실현해야합니다. 내정간섭 반대하고 자주, 평화외교의 실현으로 모든 침략주의에 반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와의 실질적 연대를 도모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국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국군작전지휘권을 되찾아야 하고, 자주국방의 실현, 군의 정치적 중립화, 군대내 민주화 실현, 전투경찰 폐지 등 총체적으로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민족자립경제의 확립과 민중생활의 안정적 보장을 확립해야 합니다. 재벌중심의 경제독점을 철저히 불식시키고 무분별한 수입개방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노동자 생존권 보장의 절대적 명제인 저임금 정책의 철폐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억압적 요소를 척결해야 합니다. 도시빈민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안정적 생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민주적 제도수립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학문사상,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반민주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국군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등 파쇼악법 기구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 •모든 양심수는 전원 석방되어야 하며 민주인사에 대한 전면 사면·복권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 공세, 좌경용공조작을 금하고, 통일논의에 대한 일체의 외세개입을 반대하고 국민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 애국 시민 여러분!

선거투쟁에서 우리가 싸워야할 대상, 싸워서 얻어야할 목표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싸워야할 대상은 각 후보자가 아니라 군부독재이며, 쟁취해야할 목표는, 전.노 일당의 완전퇴진, 미국의 외세개입 차단, 민주정부수립입니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10.16부마항쟁의 계승 과 6월항쟁의 계승으로 27년 군부독재의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투쟁에 전시민 궐기하여 기필코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화의 거리로 나섭시다.

•광주학살 책임지고 노태우는 사퇴하라!! •거국내각 구성하여 공정선거 보장받자!!

•3.15부정선거 김정열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정부 수립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미국없이 살수있다. 미국놈을 몰아내자!!

조국분단 43년 10월 17일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남부지구산하

자주화 민주화의 여성기수 부산여자대학 총학생회

- 2-2 -

(성명서)부산의 애국 시민에게 드리는 글,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남부지구산하 부산여자대학 총학생회, 1987년 10월 17일

성명서를 작성한 이들의 당시 상황 인식은 간명하다. “독재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다!”

독재정권은 노동자 대투쟁을 가혹하게 진압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6월민주항쟁 이후 들어선 김정렬 내각은 김정렬 본인부터가 전두환 집권을 도운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다. 따라서 성명서 작성자들은 ‘전두환의 후신인 노태우가 권력을 이어받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거국내각 수립을 요구했으며, 이후 탄생할 민주정부는 전투경찰제도 폐지 등을 통해 독재정권의 물리적 힘을 해체하고, 민주화가 아닌 ‘안정’에만 관심을 쏟는 외세(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할 ‘자주’를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그 내용 자체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우리는 성명서 속 문구들에서 더 많은 중요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그중 독재정권이 ‘27년’간 이어져 왔다는 문구에 주목하자. 이 문구를 통해 성명서 작성자들은 전두환 정권이 본질적으로 박정희 독재체제의 연장이라는 독재정치의 계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성명서 작성자들은 그 대항마로서 6월민주항쟁 정신의 선조이자, 민주화운동의 계보 속 중요한 사건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소환하고, 나아가 계승하자고 호소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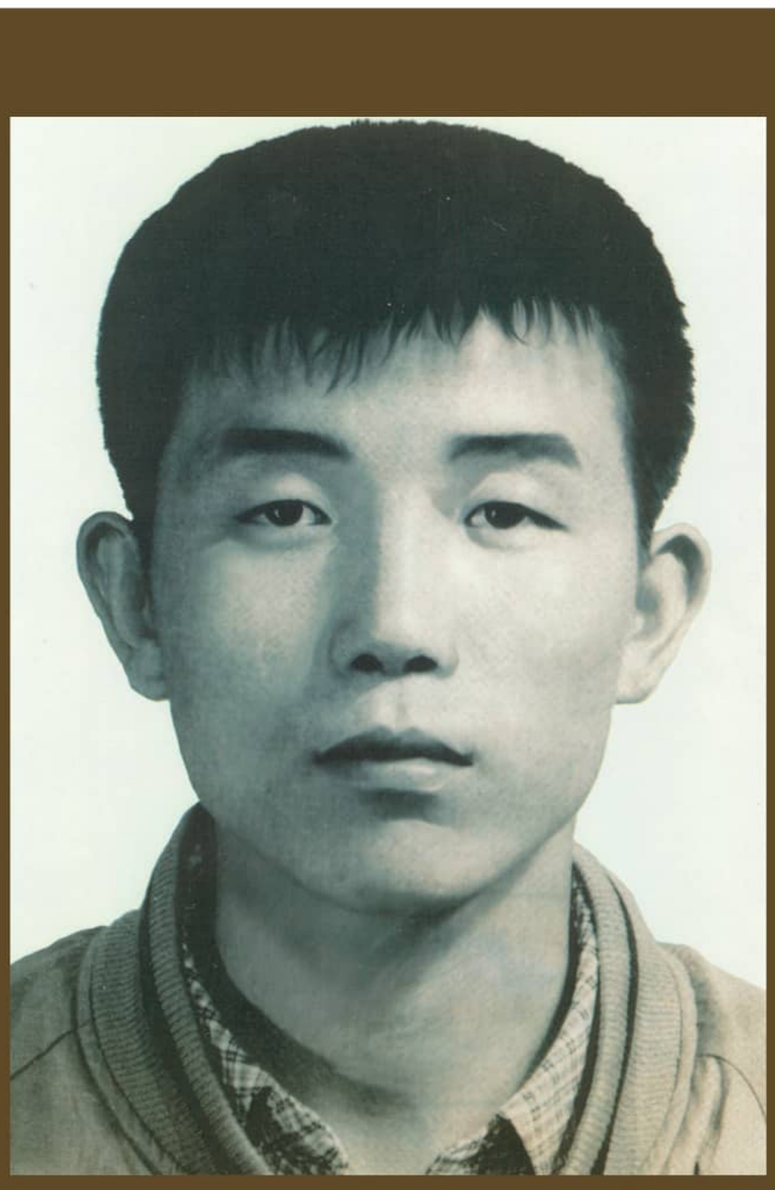
비록 성명서 속 우려가 현실이 되어 독재정권의 연장인 노태우 정권 수립으로 이어졌지만, 부마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민주화운동의 계보 속에서 연결하고자 한 성명서 작성자들의 시도는 노태우 정권 하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에 전폭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여러 민주화 정신 계승사업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성명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성일, 꺼지지 않은 한점의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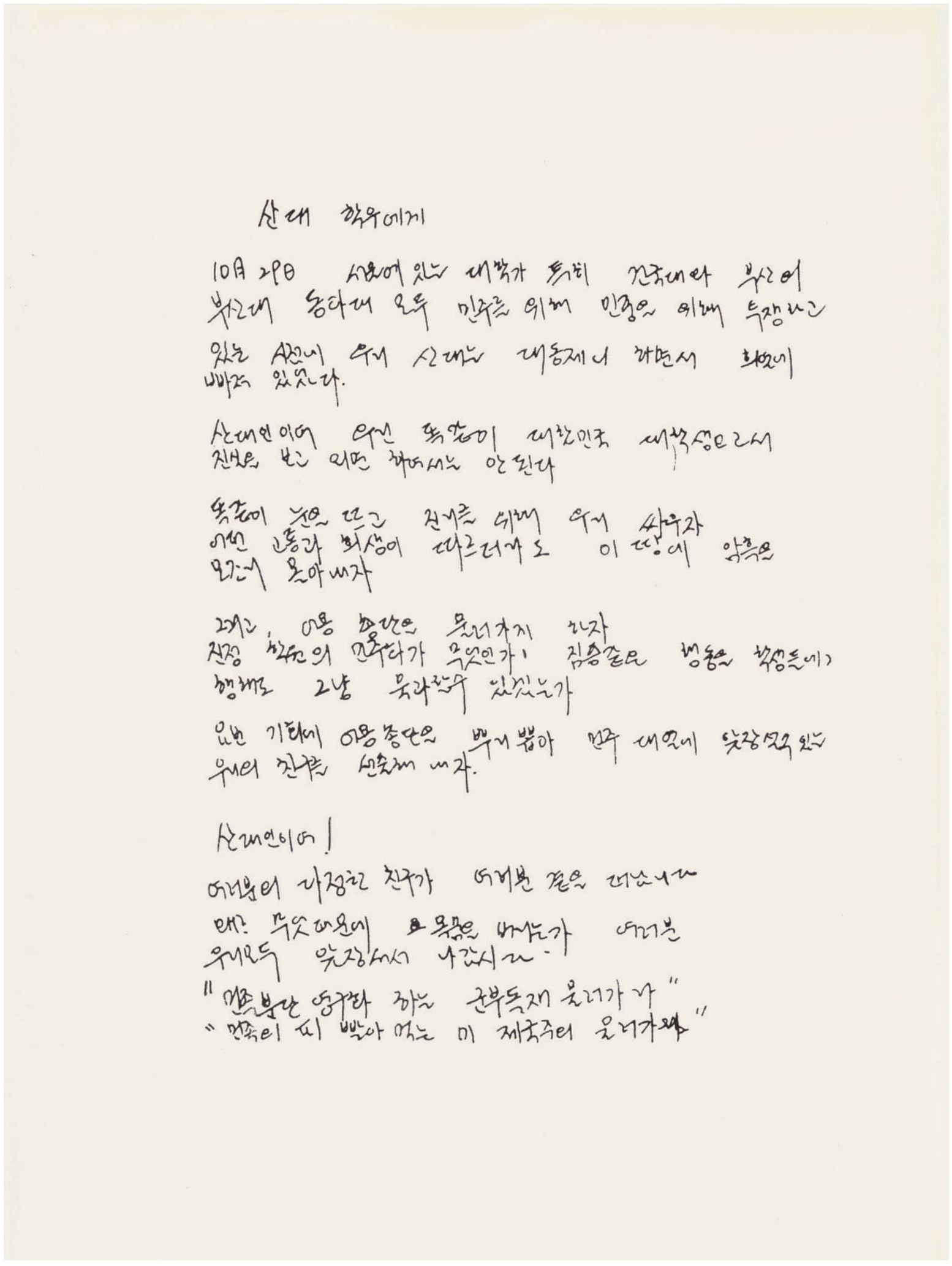
조원호 | 민주열사진성일추모사업회 회장

1986년 11월 어느 가을이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학과 강의를 듣던 중이었다. 탁! 탁! 교실 안은 칠판에서 나는 백묵 소리만 가득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모두 창밖으로 시선이 모여졌다. "사람이 죽었다!" "분신 투신했다!"라며 누군가가 복도를 뛰어가며 외쳤다. 순간 복도로 나가 창문 아래를 보았다. 붉은 벽돌 바닥에 허연 분말 가루를 덮어선 인형 같은 형상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4층 강의실에서 1층 현장으로 뛰어 내려갔다. 진짜 사람이었다. 모두가 웅성거렸으나 어찌할 줄 몰랐다. 잠시 후 멀리서 앰뷸런스 소리가 울렸고 그가 몸에 불을 붙이기 전에 뿌렸던 유서가 학생들 사이로 건네졌다. 앰뷸런스는 불탄 학우를 싣고 학교 밖을 빠져나갔다. 무엇에 끌린 듯 남은 자들은 아무 말 없이 모두가 운동장 스탠드로 모였다. 꺼진 줄 알았던 한 점 불꽃이 광야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故 진성일 열사

진성일 열사는 1964년 1월생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1982년 부산산업대학교(현,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입학했으며 군 복무를 마치고 1986년 3월 복학했다. 그해 10월 31일,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 모인 학생들을 전두환 군사정권은 무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진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분노한 학생 20여 명은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총학생회실을 찾았으나 오히려 총학생회 간부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학내상황 속에서 진성일 열사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11월 5일 12시 43분경 미디어관(구, 문과대) 5층 옥상에서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 '산대 학우에게'라는 두 종류의 유인물 10여 장을 뿌린 후 온몸



진성일 열사 유서 원문

에 불을 붙인 채 투신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6년 11월 7일, 2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결식을 거행하였다.

진성일 열사의 분신 투쟁 이후 학내에서는 열사의 바람대로 민주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선출되었고, 전방 입소 훈련 거부와 독재 타도, 호헌철폐를 요구하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 87년 6월항쟁의 선두에 섰다. 88년에는 수개월간의 학원민주화 투쟁으로 학생, 교수, 학교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발족하고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학 민주화의 모범사례로 타 대학에 전파되었다. 1990년 당시 경성대 류수현 총장은 졸업식 자리에서 진성일 열사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으며, 2001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안장 대상자가 되었다.

故 진성일 열사 추모비(경성대학교 위치)

1987년부터 시작된 진성일열사추모제는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고 추모비가 세워졌다. 부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년 11월 4일 저녁에 제사를 지내며 그 뜻을 이어가기를 다짐했다. 1990년에는 주동적이고 적극적 의미로 추모제에서 계승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매시기마다 조성되는 정세에 맞게 계승제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면서 평가와 투쟁의 장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996년에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계승사업을 위해 총학생회 중심에서 민주동문회 등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민주열사진성일추모사업회를 창립하고 계승제를 주관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진성일민주상'을 제정해 동문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수여함으로써 자주, 민주, 통일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2006년 20주기 계승제에서 '진성일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2011년 11월 4일에는 진성일장학회 발족과 제1회 진성일장학금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했다. 2019년에는 학교당국의 비민주적인 학원 운영에 맞서 교수협의회, 민교협, 총동창회, 직원노동조합과 민주동문회가 함께 '경성대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원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면서 '경성대 개혁연대'를 결성하여 민주사학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 과정의 어느 순간부터 총학생회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며 앞으로의 과제다. 이후 민교협과 총동창회, 교수협의회에서 진성일장학금을 기탁하고 계승제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다.

진성일 열사는 경성대의 뿌리이자 출발이다. 시대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린 똑같은 대한민국 대학생으로서 진실을 보고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라던 진성일 열사의 요구에 따라 함께 진실을 찾고 정의

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해왔다.

매년 11월 4일만 되면 마치 연어 떼처럼 그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39년간 11월 4일 저녁이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에 잔을 올려 절을 한다. 차려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하루 진성일이 된다.

내년은 진성일 열사 분신 40주기가 된다. 진성일 열사 40주기에는 자식 세대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40년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집회에 적극적이며 시도 때도 없이 이모 삼촌들과 모여 밤을 새우며 웃고 떠들고 토론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고 싶다. 부모들의 민주적 삶의 지향과 공동체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성일을 알지 못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진성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진성일을 잊어가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진성일 열사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잔을 올려 절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할 것이다. 민주열사 진성일 추모사업회는 올해도 내년에도 다음 10년에도 그렇게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진성일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다.

스물셋 혹은 예순셋 진성일과 함께.

(사진=필자 제공)

39주기 민주열사진성일 정신계승제

아! 어머니!

–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 회고 –

허운영 | 前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現 어린이도서관 동화랑놀자 관장

언젠가부터 보라색 두건을 쓴 40~60대 어머니들이 시국 · 민생 집회가 시작되면 군중들의 맨 앞에 앉아 계셨다. 20~30대 청년들이 그 뒤에 앉아 구호와 노래를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며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모든 집회 현장에서, 경찰서에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그분들은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셨다. 그들은 이름을 불러 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불러 주기를 바랐다. 이름도, 명예도 필요치 않았다. 집회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학생들, 노동자들, 민주시민들이 있으면, 그들이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니들은 이미 경찰서에 와서 싸우고 계셨다.

"구속 학생 석방하라! 폭력 경찰 물러가라!"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체포된 학생과 민주시민들은 경찰서 안에서 더 힘차게 민주주의를 노래하고, 폭력적인 국가 기관을 규탄하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으로 민족은 둘로 나뉘었고, 나라도 둘로 나누어졌다. 통일된 조국을 염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상범으로 죽임을 당하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한국전쟁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으로 학살당했다. 1960년 4.19가 일어나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자, 들불처럼 일어난 사람들이 보도연맹 희생자 가족들이었다. "내 형제자매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라!" 그들은 가장 먼저 일어났고, 가장 먼저 탄압받아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수많은 민주 인사들과 통일운동가, 노동자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무도 그들의 석방과 인권을 위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1981년 부림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식이 끌려가고 가족이 죽임을 당해도 쥐 죽은 듯 숨어야만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무장 군인들에 의해 쓰러져 갔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다. 조그만 독서운동 조직도, 막걸리 한 잔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그때, 정의를 바라며 민주화와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은 동토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었다.

부림사건과 민변, 가족들의 싸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한편, 우민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부산의 부림사건을 조작하였다.

1979년 10월항쟁의 주체였던 양서협동조합 회원들과 부산 지역의 대학생, 노동자들은 독서회를 만들어 사회 현실에 분노하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이어갔다. 그러나 1981년 전두환 정권은 통

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부림사건을 조작하였다. 이들은 지금 어느 공공도서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한 젊은이들을, 금서를 읽으며 의식화 활동을 하고 정부 전복 집단으로 조직하였다며 19명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최장 63일간의 고문을 가했다.

하룻저녁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을 찾아 헤맸고, 그들이 대공분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던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싸움을 시작하였다. 부림사건을 통해 부산 지역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을 만났고, 어머니들은 투쟁 속에서 조직화 되었다. 그 당시 김광일 변호사, 이흥록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등이 인권변호사로 부림사건을 변호하였으며, 자식과 함께 죽겠다며 모인 사람들이 가족대책위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림사건은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 조직화와 세력화에 기여했다.

부림사건 참여 변호사들이 민변을 만들고, 부림사건 가족들이 가족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KNCCP,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평신도들이 이들을 지원하며 부산 지역 민주 세력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부림사건 피해 가족들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청년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으며, 민주화의 동지가 되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돌아가시자, 그해 2월 5일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조직하고, 모든 양심수의 어머니와 모든 열사의 가족이 될 것을 결의하였다. 1987년 6월항쟁에서

민가협 회원들은 언제나 시위의 맨 앞에 섰으며, 끌려가는 민주시민들을 그 자리에서 구출하고, 이미 끌려갔던 시민들은 경찰서, 검찰, 구치소로 찾아다니며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민주어머니들이 되었다.

부산민가협의 위기와 재도약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머니들은 언제나 맨 앞에 서서 싸웠으며,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고 부산경찰서장을 무릎 꿇게 만들
었다. 1988년에는 노무현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
키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서 뛰어다녔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탄압을 받는 곳에는 언제나 어머니들이 계셨다.

부산민가협에도 위기가 있었다. 아직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5.3 동의대 사건 이후, 어머니들은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고, 경찰이 7명이 죽었다는 것과 관련해 5.3 동의대 학부모대책위원회와 함께 하자는 것에 주저하게 되었다.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와 부산 지역 장기수들의 석방으로 부산민가협 활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사무실도 폐쇄되었다.

1990년 9월, 5.3 동의대 가족대책위와 민가협의 통합으로 부산민가협의 적극적인 활동이 되살아났으며,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5.3 동의대 구속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교도소 간 연대 투쟁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후 동아대학교 애국군인 사건, 풍산금속 사건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부산민가협은 1991년 이인모 선생의 치료와 북송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갔으며, 마침내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93년 이인모 선생을 당신의 조국인 북으로 보내드렸다. 이인모 선생을 통해 부산 지역의 많은 장기수들, 특히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어 부산으로 보내진 장기수들을 찾아내고 치료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다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대부분 북이 고향이었으며, 남쪽에 가족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수들을 무연고지 지역 양로원에 내버리듯 보내었고, 이들은 고독하게 사회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었다. 부산민가협은 양심수후원회와 함께 부산으로 보내진 비전향 장기수들을 찾아내고 치료하며, 북송 운동을 진행했다. 2000년 마침내 대부분의 비전향 장기수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고문 등으로 강제로 전향서를 쓴 많은 장기수들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다.

1995년 광복절 사면으로 동의대 사건 구속자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2002년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서 부산민가협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부산민가협 그 중심에는, 부산민가협의 상징이자, 양심수의 어머니를 넘어 민주, 인권, 통일 운동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20년간 맡아 온 이정이 대표가 있었다. 그는 2024년 10월 별세할 때까지 부산민가협과 지역 민주화운동의 길을 굳건히 지켜 주셨다.

민중가요 저장소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이보람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홍보 · 기록

지난겨울, 서면 거리에 울려 퍼진 민중가요의 한 소절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궁금해진 마음에 전체 가사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민중가요 저장소’라는 블로그를 발견했죠. 블로그는 민중가요 저장소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의 일상과 민중가요 관련 소식을 전하는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6월 발행한 『성찰과 전망』 41호에는 민중가요 저장소 지킴이인 김영구 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글을 읽고 그곳이 더욱 궁금해져, 지킴이와 인연이 있는 주변 사람을 통해 ‘민중가요 저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산 동구 수정동의 작은 단층 주택을 민중가요 저장소로 꾸민 그곳에서는, 민중가요 음반을 공유해 듣고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중가요와 관련된 시집과 소설, 이론서를 직접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음악 공간을 넘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김영구 지킴이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중가요 저장소 지킴이 김영구입니다.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와 굿패 ‘영산마루’에서 활동했으며, 1999년 민주공원 개관 기념공연 〈민주 불꽃 바람〉(채희완 작 · 연출)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또한 6월항쟁 30주년 부산 기념식 작품 〈그해 6월〉을 창작하고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중가요 저장소를 한 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민중가요 놀이터’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중가요를 듣고, 부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책방에서는 민중가요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음반이 진열된 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중가요를 들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저항음악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현재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야 합니다. 기념관처럼 단순히 진열된 채로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들려야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테이프, CD, USB, 레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직접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민중가요란 무엇인가요?

저항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음악이죠. 물론 대중가요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가요는 판매가 목적입니다. 시장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저항보다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죠.

민중가요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대중가요와 다른 음악이 나오자 금지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가요를 재창작하는 형태로도 존재하다가, 이후 본격적인 창작으로 발전했고,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독재, 외세, 분단,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민중들의 목표 속에서 한 예술가로서, 진보적인 예술가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활동 시기마다 집중했던 주제가 달랐습니다. 통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통일 관련 노래로, 노동 관련 이슈가 있을 때는 노동 관련 노래로, 그때그때 민중과 함께했습니다. 전두환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민중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중가요는 집회 공간뿐 아니라 카페, 동네 축제, 도서관 등에서도 공연됩니다. 머리띠 두른 공간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음반을 보면 조용한 노래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중가요는 대중가요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음원으로도 듣기 어렵고, 관심 있는 사람조차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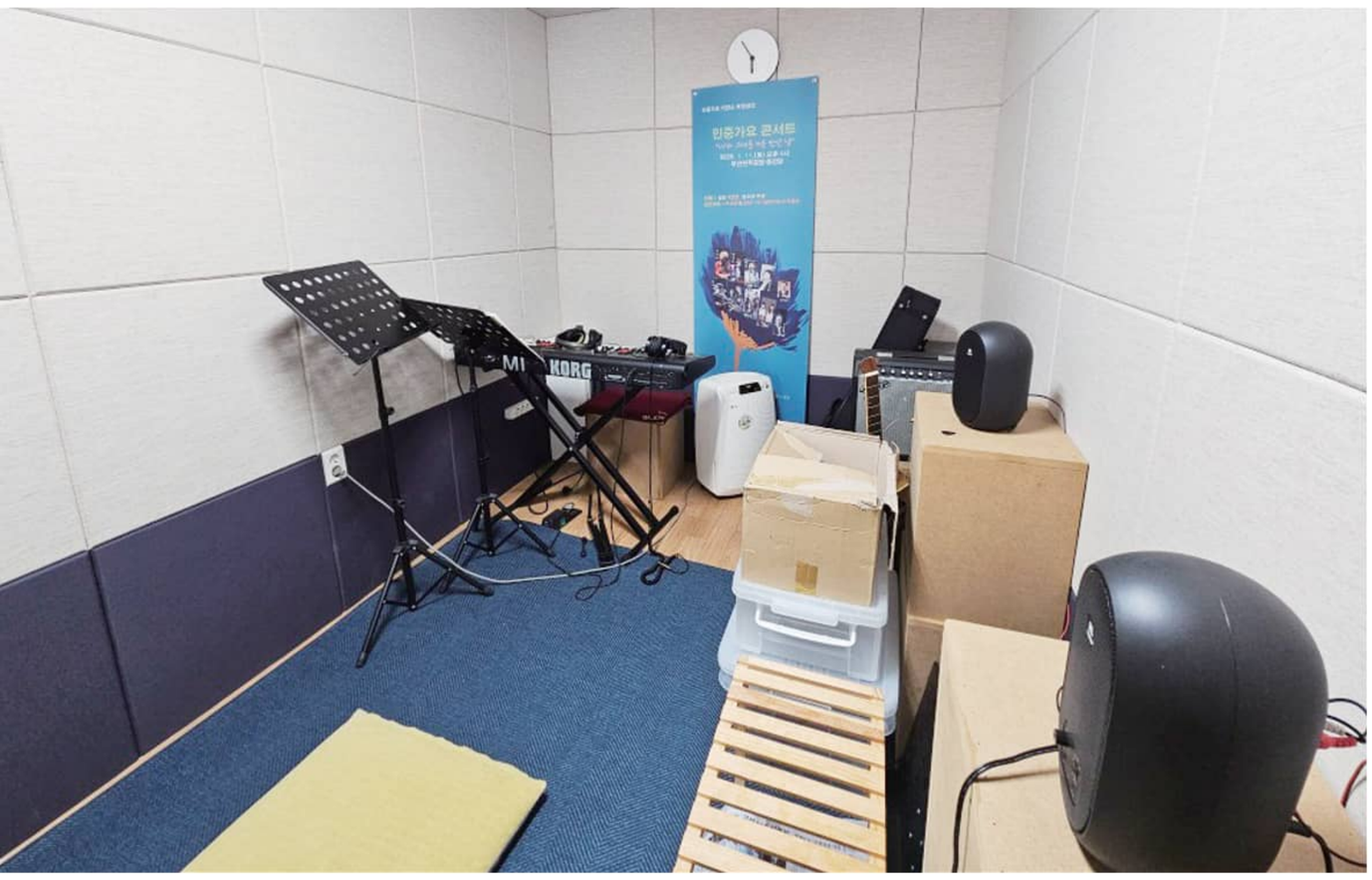
왜 민중가요 저장소를 열게 됐는지, 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21년 겨울부터 준비를 시작해, 22년에 정식 개소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습실과 동호회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연습실에서는 음악을 연습하고 작업을 하고, 동호회 모임도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다 보니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꽤 많아 부담되더군요. 매달 몇십만 원을 내면서 한 달에 네 번 모이는 구조가 너무 소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업실을 아예 옮기고, 테이프를 모두 가져다 두면 어떨까?' 하고요. 서울에 있는 선배들에게도 문의했습니다. 민중가요를 들을 수 있는 카페나 박물관 같은 공간이 있냐고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술집에서도 민중가요만 틀어주는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자!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활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내에서 사무실을 구하면 매월 비용과 방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주택이라면 방 하나만 방음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살고 있는 집이랑도 멀지 않고, 텃밭도 있고, 산복도로에 있어서 민초들이 사는 마을로 올라갈 수도 있으며, 버스 정류장과도 가까워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주택을 리모델링해 민중가요를 들을 수 있는 공간과 방음 시설이 있는 연습실, 책방을 마련했고,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연습실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도 꽤 넓어서, 민중가요 저장소를 거점으로 수정동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 소식지를 읽으시는 분 중, 수정동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간판에 적힌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민중가요 저장소 이름은 곡 제목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김정환 글, 이지상 곡)에서 따왔습니다. 이 노래는 민중가요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암울한 시대의 단조풍 곡들 속에서 장조풍의 밝은 곡이 등장하며, 밝게 투쟁하자는 메시지를 담았고, 일상에서도 투쟁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1992년에 만들어진 곡으로, 당시 투쟁 현장에서 널리 불렸습니다. 제가 87학번인데 1993년 제대 후 돌아왔을 때, 이 노래를 듣고 노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영하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연이 있으신가요?

한 분이 80년대 말, 90년대 초 당시의 민중가요 테이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가지고 계셨어요. 그 테이프를 저장소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청춘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었다. 세 번의 이사에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나의 청춘을 민중가요 저장소로 보냅니다"

저는 민중가요 저장소가, 당시 투쟁했던 대학생들이 자기 아이와 함께 찾아와, "엄마, 아빠는 정의를 위해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민중가요를 통해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중가요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사회의 외면 속에서 추위에 홀로 죽어간 장애인의 삶을 담은 김종환의 노래 〈함안〉, 그리고 소설『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고교생 시민군'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어머니가 부른 〈엄마 안 보고 싶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민중가요는 단순히 '투쟁가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즉 집회 공간에서 주로 접하게 되니 투쟁곡이 익숙하겠지만, 민중가요는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보지 않으려 하는 이야기들도 담고 있습니다. 올림픽으로 집이 통째로 철거되는 도시 빈민의 삶 등 사회의 어두운 면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노래 속에 녹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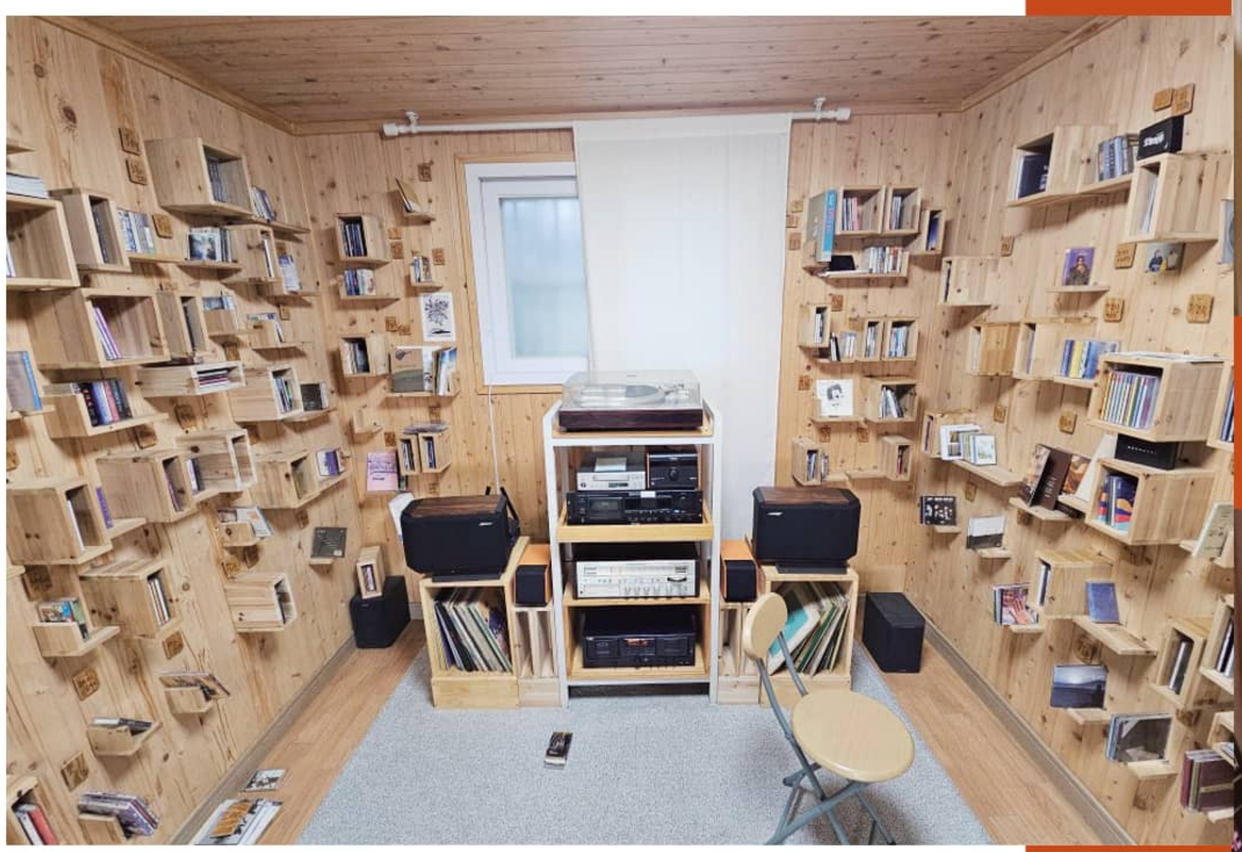
제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대중가수가 절대 부르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대중가요가 이러한 노래를 외면하는 이유는 상업성이 없기 때문이죠. 민중가요는 그 외면된 삶을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민중가요가 80~90년대 '자주 · 민주 · 통일 · 혁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만들어지고 불렸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삶과 경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작은 삶과 현실이 노래로 기록된 것이 바로 민중가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웃음). 민중가요 저장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안정되게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처음에는 음반을 기증받는 방식으로만 운영했지만, 기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중가요 음반들은 대부분 중고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중고 시장에서는 가격이 꽤 높습니다. 제목이 특이하거나 과격하거나, 희귀한 일부 음반은 우표 수집하듯,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민중가수는 자기 음반이 하나도 없어 찾고 있었는데, 누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락했더니 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민중가요 저장소가 생긴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쁘기만 했지만, 알고 보니 일부는 음반 거래 업자였고, 블로그에도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음반을 구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에 블로그 운영도 잠시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환도 하고, 설득을 통해 거대한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완전히 공개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전에 연락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방문 안내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중가요 저장소
블로그

민중가요 저장소는 단순히 음반을 모아 놓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기억, 그리고 사회의 외면된 이야기들이 노래로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현재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야 한다"라는 지킴이의 말처럼, 이 공간에서 민중가요를 듣는 순간,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다음 세대에게도 연대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이곳에서 시민항쟁으로 발전하다",
광복로 부마길 표석

부마민주항쟁 46주년 기념 시민 · 회원 프로그램

시월, 민주주의를 만나다

유한별 | 민주공원 시민홍보팀 시민 · 회원사업

지난 10월 18일과 25일, 부마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회원과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월에 걷는 부마

하늘이 살짝 흐린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첫 일정으로 〈시월에 걷는 부마〉 현장 탐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부산대학교 일대를 함께 걸으며, 1979년 그날의 숨결이 깃든 공간을 따라 항쟁의 흔적을 되짚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정문 앞 새로 조성된 10 · 16거리를 시작으로, 새벽벌도

서관의 10 · 16부마민중항쟁탑, 10 · 16기념관, 건설관, 웅비탑,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표지석 등을 둘러보며 민주공원 해설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재학했던 청년 회원들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길이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라며, 학창 시절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훨씬 뜻깊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학우여!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옛 도서관 건물 앞에서는 당시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 배포했던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선언문에 공감한 수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 모이면서 항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학내를 행진하던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고, 동아대학교 학생들까지 합류해 부산 시내 중심가까지 진출했습니다. 야간 시위에는 퇴근한 직장인과 상인 등 시민 5만여 명이 함께하며 항쟁의 대오를 이뤘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꽃은 시민들의 참여로 번져나가 연대의 힘이 되었고, 마침내 유신체제의 종식을 앞당긴 뜨거운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앞의 40주년 기념 표지석에는 "청년 학생, 이곳에서 독재타도의 선봉에 서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항쟁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때마침 문창회관 게시판에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도 자주와 민주를 외치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여전히 대학 안에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진대오의 여정을 되짚어 가듯이 정문방향으로 내려오니,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 '시월광장'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기념해 운동장 일대를 공식적으로 시월광장으로 명명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부마민주항쟁 46주년 기념 시민 · 회원 프로그램

시월, 민주주의를 만나다

‘오월’이 광주의 5 · 18을,

‘유월’이 6월항쟁을 상징하듯,

‘시월’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는

부산의 이름입니다.

한울장애인자활센터
부설 한울장애 어

동화서점

The Busan-Masan Democratic Uprising
시위에 걷는 부마

HIGHLIGHT
구두수선센터
시월에 걷는 부마
부마민주항쟁 46주년 기념 <시월에 만난 민주주의> 부마길 현장탐방
2025년 10월 18일 (토)
민주공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월광장'과 '10.16부마민주항쟁로' 조성과 더불어 10월 16일을 학교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월에 만난 민주 이야기

10월 25일 토요일에는 민주공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체험 행사와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항쟁기념관 1층 로비에서 터널북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회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정다운 가을의 분위기 속에서 체험을 즐겼습니다.

터널북은 여러 장의 종이나 필름을 겹겹이 이어 붙여 안쪽을 들여다보면 깊이감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입체 책으로, 작은 창문을 통해 시간과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듯한 매력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부마민주항쟁의 장면이 담긴 역사 사진 필름을 오려 붙이며 자신만의 터널북을 완성하고, 손끝으로 항쟁의 순간을 되새기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5 · 18기념재단 박진우 기록진실부장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 · 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강연은 쉽고 흥미롭게 이어졌고, 어린이 회원들도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월, 계속 타오르다

'오월'이 광주의 5 · 18을, '유월'이 6월항쟁을 상징하듯,

'시월'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는 부산의 이름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이 잊히지 않고 오늘로 이어지도

록, 그리고 시월이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더 자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의 뜻을 함께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기억을 나누고, 민주주의의 불꽃이 일상 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 헌법에 새겨야 할 이름

김종기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거리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유신독재의 어둠을 흔들었다. 청년 학생과 평범한 시민들이 함께 외친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외침은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의 언어였다. 그것이 바로 부마민주항쟁이다. 18년에 걸친 박정희 군사독재와 유신 체제 종식을 이끌어낸 위대한 시민항쟁이자 민중항쟁. 이 항쟁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예비했고, 1987년 6·10민주항쟁의 바람이 되었으며, 결국 2016년 '촛불혁명'으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의 마중물이었다.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최초의 항쟁'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환점이자, 민주공화국 정신의 뿌리였다.

1987년 6.10 항쟁의 승리로 우리는 '87년 헌법체제'를 갖고 되었고, 그것의 정치적 결과물이 대통령 직선제였다. 또한 그것은 유신체제 이후 오랜 기간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은 민주화 역사의 시발점'이었다. 또한 6월 항쟁의 승리는 헌법전문에 '임시정부'와 '4.19혁명'을 새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후 우리 역사는 여러 번 굴곡을 겪었고, 마침내 2016년 '촛불혁명'과 2024~25년 '빛의 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대두한 반헌법·반민주 세력으로부터 '형해(形骸)화'된 국민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토대와 시민 항쟁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헌법정신과 가치의 명시적 선언이 바로 헌법전문이라는 점에서 6·10민주항쟁의 또 하나의 성과는 헌법전문에 새겨진 '임시정부'와 '4·19혁명'이었다. 이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민주항쟁의 성과물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헌법전문에는 아직 그 이름들이 없다. 국가의 근본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명시하는 헌법전문에 4·19혁명과 함께 이들을 새기는 것은 민주주의 연대기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한 페이지를 제대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에 새기는 일은 지역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서사를 완성하는 일이다. 헌법전문은 한 나라의 정신적 좌표이다. 거기에는 국민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며 어떤 자유를 쟁취했는지가 새겨져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은 서슬 퍼런 군부독재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시민의 용기,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던 시민의 각성이 응축된 사건이다. 이 항쟁이 있었기에 유신의 종말이 가능했고, 민주주의의 새 아침이 올 수 있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5. 9. 10.(수)
◀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요청을 위한
우원식 국회 의장 면담, 2025. 10. 13.(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원형을 복원하는 헌정사적 책임이다.

국회와 각 지방의회,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가 이미 "부마·5·18 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원형이며, 우리 헌법의 서두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헌법 속에 부마민주항쟁을 새기는 순간, 국가는 당시 시민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게 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억압에 맞서는 양심의 목소리로 살아 있다. 역사는 잊힌 이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4·19, 5·18, 6·10과 함께 헌법 속에 새겨진 부마민주항쟁의 이름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2025년 9월 10일, 부산·경남 시민단체 80곳이 연대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온 전국 시민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대한민국 4대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동시 수록을 위한 공동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족 추석 인사

2025년 추석을 앞두고 민주공원 이동일 관장과 직원들이 부산지역 민주열사 유가족을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이태춘 열사의 어머니인 박영옥 님, 황보영국 열사의 형인 황보시목 님, 박종철 열사의 고모인 박정애 시인께 추석인사와 함께 명절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故 이정이 어머니 1주기

10월 14일(화) 19시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이정이 어머니 1주기 추모행사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이정이 어머님께서 2024년 10월 15일,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생의 절반 이상을 동지들의 든든한 어머니로, 그리고 단기필마 거리의 투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정이 어머님은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언제나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지난 5.3 동의대항쟁 가족대책위 대표를 시작으로 이정이 어머님은 부산 민가협 회장을 맡아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의 '어머니'라고 불리셨고, 그 이름은 곧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시대의 부름에 당당히 답하신 이정이 어머님은 민주시민상의 제8회 수상자가 되시기도 하였습니다.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10월 16일(목) 오전 10시 경남 창원시 3·15아트센터에서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산과 창원에서 격년으로 국가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을 주제로 거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군부에 짓밟혔던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주공원 × 부산시립미술관 〈기억지도– 이어지는 이야기〉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_기록의 집을 짓다〉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기억지도-이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부산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며 세대 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의 결과물은 전시장에서 공개되고, VR 콘텐츠와 영상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2025 생활예술문화축전 '청(소)년 예술제'

11월 1일(토) 오후 3시, 민주공원 큰방에서 생활예술문화축전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청소년 · 청년 예술동아리 5팀이 풍물, 댄스, 음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초청공연으로는 〈댄스프로젝트 에게로〉와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이 발달장애 청년 배우들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과 '인권'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쇼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생활예술문화축전은 청소년 · 청년 예술동아리와 협력해 젊은 예술인들의 무대 경험과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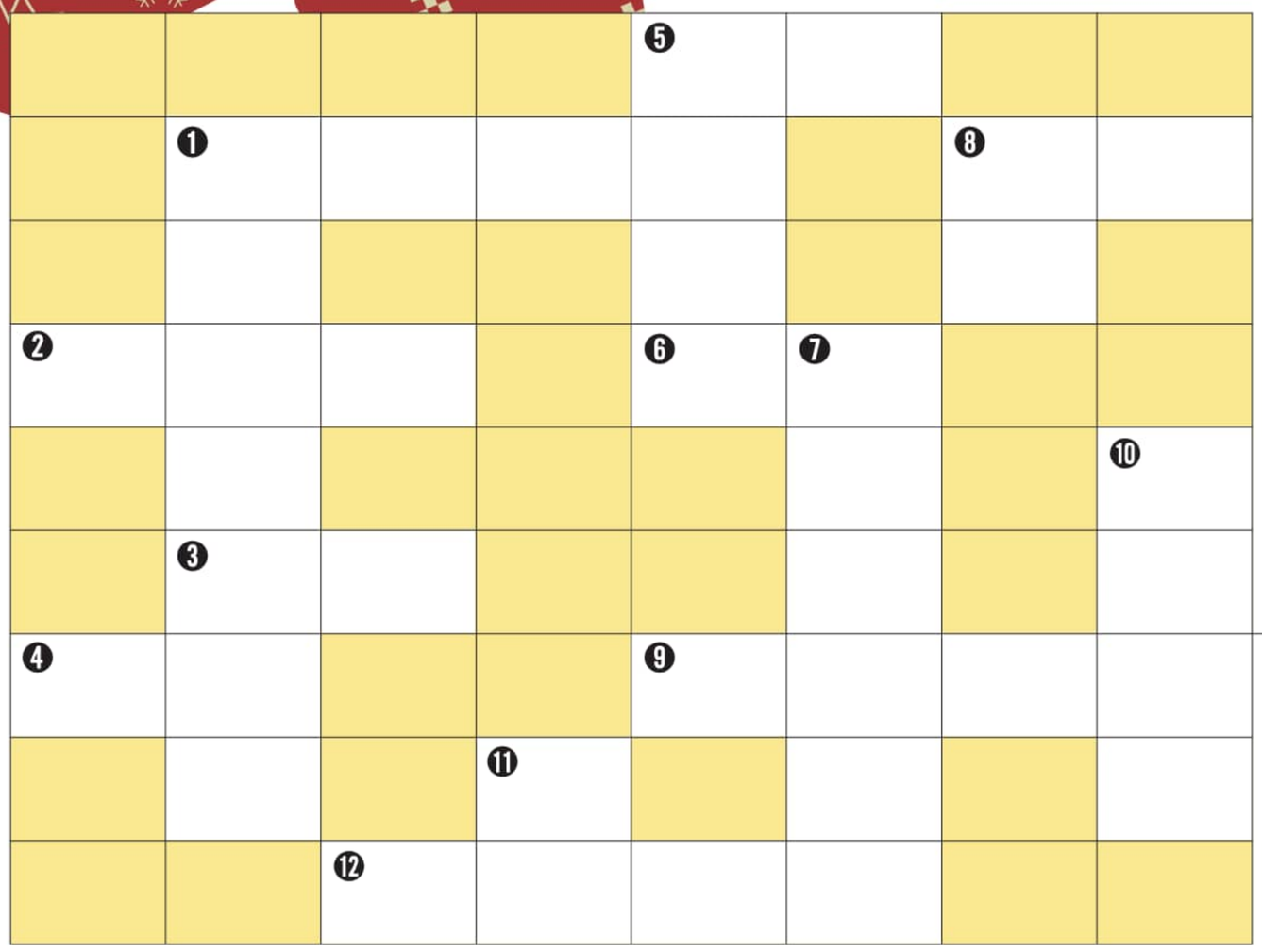
애국투사 故 박순자 선생 영결식

자주와 해방 투쟁에 한 생을 올곧게 걸어오신 비전향 장기수 박순자 선생께서 2025년 11월 4일 0시 25분에 영면하셨습니다. 영결식은 11월 6일(목) 민주공원 큰방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성 빨치산'으로 불렸던 故 박순자 선생은 1950년 하동군 여성동맹에서 활동하며 지리산에 입산했으며, 1954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65년 3월 출소하였으며, 이후 민주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故 박순자 선생의 조국과 동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더 많은 소식과 일정 확인은 민주공원 뉴스레터 '마루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 바로가기 ▶

소식지를 읽으면 정답을 알 수 있는 십자말풀이

이번 겨울호 소식지를 꼼꼼히 읽으셨다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퀴즈를 모두 채운 뒤 사진을 찍어, 겨울호를 읽은 소감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보내주세요!
정성껏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5명)



소식지 만족도 조사

카카오톡 공식채널

카카오톡 공식채널로
민주공원 소식지에 대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소식지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난 호 정답 및 정답자

박O호, 정O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호 정답은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가로>

❶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유일한 상 OOOO상
❷ 모든 양심수의 어머니와 모든 열사의 가족이 되어준 부산OOO
❸ 전 세계 OO음악가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민중가요 저장소
❹ 2023년 부마민주항쟁 44주년을 기념해
부산대학교 넉넉한터에 조성된 시월OO
❺ 민주주의기록관 사료전시실에 전시될 황보영국 열사의 유품
❻ 민주OO 수립하여 민족 통일 앞당기자!
❽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기념-기록의 집을 짓다' 전시에서
시대가 남긴 목소릴 만나볼 수 있었던 섹션 'OO과 기록'
❾ OOOO진성일추모사업회에서 매년 11월 4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하는
OOOO진성일 정신계승제와 진성일장학금 수여식
⓬ OOOO, 미래를 밝히는 과거

<세로>

❶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민중가요 놀이터인 'OOOO OOO'
❺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4월 4일까지 열리는
'12.3불법계엄 저지 1년 OOOO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❼ OOOOOO, 헌법에 새겨야 할 이름
❽ 민주주의기록관 체험 프로그램
'OO으로 만나는 민주주의-터널북 만들기'
❿ 1981년 전두환정권의 통치 기반 확보를 위해 부산 지역의
민주 세력을 반국가 단체구성원으로 조작한 사건
⓫ 역사 OO와 자주평화를 실현하고자 결성된
부산대학생행동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내 정보 확인

회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미등록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큐알코드로 바로 이동

홈페이지 ‘후원회원’ → 나의 후원 이야기 → 회원정보 확인!! → 마이도너스 로그인

2.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2026년 1월 중순 이후 가능)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가능

홈페이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전화 및 메일

조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 혹은 메일 주세요.

문의 회원사업담당 **전화** 051-750-3807 **이메일** byeol90@demopark.or.kr

12.3 불법계엄 저지 1년
시민헌정 아카이브전—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2025.12.3.—2026.4.4.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3층
잡은펼쳐보임방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시민의 빛
2025.12.3.—2026.4.4.
주최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시민추진위원
식민지역사박물관
워라카노
부산민예총
The Busan People's Artist Federation
주관 및 전시기획 민주공원
문의 민주공원 교육문화팀 051-790-7482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기록을 모읍니다!

민주공원은 민주주의기록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 관련 기록물을
수집 · 보존 · 관리 ·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민주주의 거점 기록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바랍니다.

민주공원은 민주화 관련 문서, 사진, 소품, 민중미술작품 등
5만 6천여 건의 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기록관에는 기존 사료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민주주의 기록을 기증받아
보존 · 관리 · 활용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료 기증 절차 안내

1. 기증 신청

- 전화 : 051-750-3805(학술사료팀 사료연구)
- 전자우편 : tami@demopark.or.kr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카카오톡 채널

2. 기증 희망 사료 조사 및 평가

-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료 확인(사료 수량 · 내용 · 상태)
- 사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집 범위 설정

3. 사료 수집 일정 및 활용 협의

- 기증 사료 수집 일정 협의
- 기증 후 사료의 공개 범위와 전시 · 연구 등의 활용 방안 협의

4. 사료의 수집

- 담당자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사료 수집
- 기증확인서 발급 및 기증자 혜택 제공

사단
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항쟁기념관 48901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T**. 051-790-7400
민주주의기록관 49214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61 **T**. 051-750-3800